

“더 큰 피해 발생하기 전 도울 수 있어 다행”

안소리 서광주농협 화정지점 직원,보이스피싱 추가 피해 막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원을 잃은 60대가 은행원의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등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광주농협 화정지점 직원 안소리(40대·여)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
안씨는 수상한 인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 2천만원의 추가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달 11일 피해자 A(60대·여)씨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가입한 보험을 해약했다. 이후 보험 해약금 등

수상한 진술 포착...경찰에 신고
금감원·검찰 관계자 사칭 범행
보험 해약금 2천800만원 편취
화정지구대, 공로 감사장 수여

로 마련한 2천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전달하면서 1차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추가로 2천만원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고, 인출 목적을 묻는



안씨에게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거액을 인출하려는 A씨의 설명을 수상히 여긴 안씨는 여행 일정과 준비 상황 등을 재차 확인했고, 예약한 숙소나 항공권이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 인출 목적과 A씨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안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가 추가로 2천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안씨는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종환 화정지구대장은 “은행원의 예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연상기자

GGM,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서 잇단 수상

4개 팀 출전 금1·은1·동2 쾌거

생산현장 안전성·품질 혁신 인정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처음 출전해 참가팀 모두가 입상, 생산현장의 안전성과 품질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1일 GGM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2026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제52회 전국품질보급인증경진대회)에 4개 팀이 출전해 모두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2개를 수상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보급위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현장 근로자들의 자발

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에 기여한 우수 분임조를 발굴·포상하는 대회다.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예선을 거친 315개 품질보급조와 개인이 참가해 품질 개선 성과와 현장 혁신 사례를 놓고 경쟁했다.
GGM은 이번 대회에 2개 품질보급조와 2명의 개인이 출전해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인 부문에서는 품질관리부 안경인 그룹장이 ‘김사구 장차 위험요인 개선으로 작업 위험도 감소’를 주제 발표해 금상을, 정은혜 그룹장이 ‘김차 라인 공정 개선을 통한 가동률 향상’을 주제 발표해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파트 부문에서 조립부 상생누리팀(서브B 정민학 파트장 외 7명)이 ‘도어 완성 공정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위험도 감소’를 주제로, 씨베



드팀(서브C 이지형 파트장 외 6명)이 ‘각핏 공정 개선을 통한 부적합품률 감소’를 주제로 각각 발표해 나란히 동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생산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공정과 업무 절차를 개선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온 GGM의 품질혁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부터 직원들이 업무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고 개선하는 품질보급조를 운영해 온 GGM은 올해 초 사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품질보급조를 선발한 뒤 광주지역 예선을

거쳐 처음 참가한 국가품질경진대회에서 출전 4개 팀이 모두 수상해 그 의미가 크다.
박용준 GGM 생산품질본부장은 “품질은 안전을 뒷받침하는 기본이자 현장에서 실천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성과는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직원들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제안 활동을 확대 전개해 작은 위험요인과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GGM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욱기자



김영신 여수교육장, 취임 첫날 학폭예방 캠페인

김영신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1일 오전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일정으로 쌍봉초등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 및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김 교육장의 현장 중심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쌍봉초 교직원·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여수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영신 교육장은 옛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전남교육연구원 연구기획부장, 도교육청 과장·국장까지 21년간 오직을 두루 거친 정통 교육행정 전문가다.
김영신 교육장은 “취임 첫날 가장 먼저 학교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눈을 맞출 수 있어 뜻 깊다”며 “학생들이 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심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군, 중앙상인회 회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담양군은 최근 담빛누리센터에서 담양중앙상인회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활용 방법과 폐업 지원 서비스, 재창업 및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오는 10월에 담양중앙상인회가 주도하는 ‘담양군 골목형상점가 페스타’를 개최해 상인들이 직접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인 주도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담양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야간경관 지원사업, 빈 점포 입차로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메타랜드 입



장료 페이백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교육을 통해 상인들이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목포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교육전문활동가들의 현장 적용 역량 강화에 나섰다.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달 31일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에서 성교육전문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센터가 올해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육 5대기 프로그램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실천자문과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전남 서부권역 18개 초·중학교 16개 그룹을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맞춤형 성인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활동가들이 함께 배우고 자문하며 현장 적용을 점검한 만큼 아이들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성인권 교육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기자

동강대, 美 FHDA와 인재 양성 업무협약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최근 교내 본관 1층 장원홀에서 미국 ‘풋힐-디엔자 커뮤니티 칼리지(Foothill-De Anza Community College: FHDA)’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이민숙 동강대 총장과 FHDA의 Lambert 총장이 참석해 앞으로 AI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다.
‘FHDA’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징 지역의 풋힐 칼리지(1967년 설립)와 캘리포니아 쿠파티노의 디엔자 칼리지(1967년 설립)로 구성된 2년제 공립대학 시스템이다.
특히 이 대학은 애플의 공동 창립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와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이 다녔던 학교로 IT·창업·공학 분야 인프라가 풍부하다.
동강대는 협약식이 끝난 뒤 본관 5층 나이팅



게일홀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램버트 총장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램버트 총장은 AI의 급부상과 미래 전망, 실리콘밸리와 FHDA의 혁신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민숙 총장은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춘 대학과 손을 맞잡고 AI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제9회 대한민국 무형유산 축제전

임지는 ‘무용숲’ 대표 ‘종합대상’



국악진흥협회는 임지는 무용숲 대표가 ‘제9회 대한민국 무형유산 축제전’에서 이매방류 승무로 명인부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문화유산재단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호남산조 춤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전에는 총 73명이 참여했으며, 명인부에는 10명이 참가해 전통춤의 기량을 겨뤘다.
임 대표는 명인부에서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였던 고 이매방 명무의 춤맥을 잇는 ‘이매방류 승무’를 선보이며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승무는 장삼을 입고 고깔을 쓴 채 추는 한국 전통춤으로, 절제된 움직임과 장삼 자락의 변화, 북가락이 어우러지는 춤이다.
임지는 대표는 “앞으로도 전통춤의 원형과 정신을 지키고, 우리 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임 대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국악진흥협회 순천지부 무용분과장과 박병천류 진도복춤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등을 맡아 지역 전통무용의 계승과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오복기자



장애인 인권 화가 김근태 화백 별세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작을 세계 무대로 이끈 광주 출신 김근태 화백이 1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김 화백은 1957년 광주에서 태어나 조선태미대 재학 시절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시각과 청각에 장애를 갖게 된 그는 목포 고하도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발달장애인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고, 인권화가로 평가받았다.
고인은 3년에 걸쳐 총길이 100m에 이르는 대형작품 ‘들꽃처럼 별들처럼’을 완성해 2012년 미국 UN 본부에서 전시했다.
평창 패럴림픽,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호주, 독일 등에서도 작품이 소개됐으며 5·18 40주년인 2020년에는 옛 전남도청이 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특별전이 열렸다.
또한 김 화백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
장애 예술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한 문화 프로젝트 ‘아트파라(ArtPara)’를 통해 이탈리아·프랑스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국제 전시를 진행했다. 2017년 제네바 유엔 사무국 전시를 시작으로 2018년 평창과 파리 유네스코 본부, 2024년 파리 OECD 본부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발달장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호순씨와 아들 김창현, 딸 김아용씨가 있다. 빈소는 목포 금호장례식장 302호 /오복기자

알림

▲경주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9월 정례회=9월 10일(목) 오후 7시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사무실(광주 북구 서암대로181, 약국 4층), 주차:H 메디컬검진센터 주차장, 연락처: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사무실(010-8857-6616)

결혼

▲곽출철(해남연호토건 대표)·고형희씨 장남 영민(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주임 연구원)군, 오미화씨 장녀 임효빈(제주대학교 공영대학교 사업단 주임 연구원)양=9월5일(토) 오후 1시 제주 연호호텔 3층 웨딩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부로 67), 010-3625-1212
▲정균관(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감사)·박경자씨 아들 영준군, 박옥희씨 딸 정단비양=9월5일(토) 오후 5시 광주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 287), (062) 710-4000, 010-86 03-8293.